

다산포럼

3·1절 98주년, ‘민국’의 꿈은 얼마나



김 태 희
다산연구소 소장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다른 이름으로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도 있었다. ‘대한’이란 이름으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조선·고려에 대해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달랐다.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이 ‘민국’이다. 왜 ‘민국(民國)’이었을까?

왕국도, 제국도 아닌 민국이란 이름은 당시 다른 나라에서 혁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민주공화국’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1912년에 ‘중화민국’의 선포가 있었기에 그 영향도 거론된다. 하지만 민국이란 단어는 이미 전통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대한제국기에 많이 사용된 익숙한 단어였다.

전통시대 ‘민국’이란 단어는 ‘민(民, 백성)과 ‘국(國, 나라)의 병렬적 결합이었다. 17세기 과거시험에 “백성과 나라 사

이에 어느 쪽이 우선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듯이 일찍이 양자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民惟邦本)”이라는 민본주의적 전통이 깔려 있었다. 탕평군주 영조, 정조가 ‘민국(民國)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점차 일체화된 단어로 굳어져 ‘백성의 나라’라는 뜻이나 그런 뉘앙스의 단어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군주의 나라’도, ‘양반의 나라’도 아닌 백성의 나라인 것이다. 왕조시대 군주조차 존립 근거를 백성에게서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하고, 백성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나라의 권력은 소수의 발열가문이나 장악하고, 백성의 저항은 민란으로 규정되었다. 고종 때엔 민국이란 단어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견딜 수 없어 들고 일어난 자국의 백성을 군란이다 민란이다 하여 청과 일본의 군대를 끌어 들여 진압하는 상황이었다.

나이가 ‘대한제국’을 세웠지만, 백성과 왕실이 따로인 나라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한 날 너무 조용했다는데, 이미 모든 정치세력이 내부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각계격과 당한 후였고, 실의한 백성은 나라 지킬 의지를 결집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년이 채 되지 않아, 후발 제국주의의 가혹한 무단통치를 겪은 나라 잃은 백성

은 스스로 일어나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손병희는 독립운동의 대중화, 독립운동의 일원화, 독립운동 방법의 비폭력 등 세 가지 원칙을 들었다. 비폭력 저항권 행사였다. 2개월여 동안에 200만 명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7500여 명이 죽었다. 독립선언을 일제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3·1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탄생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조선왕국의 백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탄생한 것이다.

삼일절 98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자. 국민은 국가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국가는 제구실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라 통칭하지만 그 개별 구성원인 국민은 균일하지 않다. 필요하면 국민의 의사는 다수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1917~2014)는 다수의 법칙과 최강자의 법칙을 들면서 다수의 법칙이 토론과 투표에 의존하기 때문에 폭력적이지 않아 통합에 더 유리하다고 했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폭력보다 설득이 효과적이다. 또한 다수의 약자에게 소수의 강자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다만 소수 약자의 보호와 수호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의 보호가 문제로 남을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폭

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전유하고, 미리 규정된 신중함 절차(헌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다. 폭력성을 제거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다. 만일 국가권력이 헌법절차를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하게 된다. 폭력을 마구 부추기는 발언은 양식있는 시민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제도로서 여러 국가기관의 구성체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정원의 2/3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실망하고 분노한 다수 국민의 요구와 국회 다수의원의 의지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당초 정치 문제를 사법권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사법기관에 정치적 성격도 겸유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처지이다.

2년 후, 삼일절 100주년에는 안으로 국가를 건설하여 남북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국민 통합의 기운이 넘치고, 밖으로 위력과 대립의 시대가 가고 도의와 협력의 시대가 왔으면 한다.

정춘 특·특

안정을 원하는 당신께



김 태 진
동네출입 대표

요즘 대학교 도서관은 공무원이나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붐빈다. 이유를 물으면 ‘안정’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청년들이 ‘안정’이라는 단어에 갇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입사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들이 원하는 직장만 갖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둘째 치더라도 과연 안정적인 수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 ‘안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자.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이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일까. 아니, 과연 그런 게 있긴 한 것일까. 2년 전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부산 인프라코어에서 실시한 명예퇴직이 바로

그것이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비롯한 23세 직원까지 명예퇴직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두산이라는 기업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결국, 신입사원 명퇴는 철회되었지만 그로 인해 두산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런데 두산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대기업이 30대부터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이뿐인가. 지난 17일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해운업계에 취업하면 고액연봉, 오랜 근무연수 등이 보장되며 이른바 ‘대박’을 쳤다고 했었다. 지금의 해운업계는 어떠한가. 안정적인가?

그렇다면, ‘철밥통’에 비유되는 공무원 역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 본다. 산업구조 변화가 크지 않았던, 다시 말해 사회의 흐름 자체가 안정적인 그래프 곡선을 그리고 있는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인이었다. 바로 우리 부모세대가 딱 그 지점에 있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 변화속도를 산업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미 전반적인 산업구조들이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했다. 기업뿐 아니라 갈수록 국가 기관마저도 극심한 변화

의 후폭풍을 맞닥뜨릴 것이다.

집에 앉아 주민센터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면, 세금신고가 모두 전산화된다면, 기타 다른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적용돼 사람이 필요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을까. 정년이 보장될까? 20년 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 공무원을 자신의 꿈이라고 적어낸 친구들은 없었다. 당시 20년 후 고등학생들의 원하는 꿈 1위가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본 적 없다. 과연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공무원은 여전히 ‘철밥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의 청년들이 학부모가 되어있을 그 시기쯤 말이다.

한 대학 졸업 축하사에서 유명배우 짐케리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다. 짐케리의 아버지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지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짐케리가 12살이 되던 해 직장을 잃게 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한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인 유행이나 흐름에 편승해 간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아갈 확

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진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주변에는 소위 이상한 놈들이 참 많은데, 누군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일주를 떠나고, 누군가는 퇴사 후 조종사가 되겠다며 비행학교에 다닌다. 또 다른 이는 무인도만 찾아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푸드트럭을 만들어 창업했다.

물론 이러한 삶들이 안정을 찾아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고 답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주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만의 무기가 생긴다. 그 무기는 앞으로 다가올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는 더욱 큰 자산으로 남게 되리라 본다. 삶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가지 말라는 건 아니다. 다만, 하고싶은 게 있을 때 과감히 도전하고 달려갔으면 한다. 그런 사회 분위기도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불안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자. 무엇을 해도 불안정한 이 시대엔 ‘내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社說

최종 변론서도 난무한 대통령 측 억지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박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직 접 쓴 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종진술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통령 측 이종환 변호사는 태블릿 PC 출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불법 증거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며 노예처럼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한제 결정 불복을 선포했던 김병우 변호사는 국정 농단은 최순실의 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치적 무능력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거나 ‘문건 전달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악의적 유언비어에 기반한 황당한 소추사유”라고 하는가 하면 탄핵심판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왜곡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쪽 대리인 이응구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은 사유 하나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17개의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오는 사설의 결론은 어제 있었던 황정근 변호사의 변론으로 대신한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취한 피청구인의 태도도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습니다.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는 등으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불가피하게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집단소송의 의미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 38명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들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 문화예술인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선례를 남기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

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다. 청구액은 38명의 원고별로 각 100만 원으로 정했고 향후 특검 수사 결과 등으로 경위가 추가가 드러나면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원고와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사실 정부가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태는 헌법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중대 범죄다. 무엇보다 정치적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예술인 스스로 검열하게 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냄으로써 반민주적인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26년 전, 대학 졸업식에서 어떤 내용의 축사를 들었을까 생각해 보지만 전혀 기억이 없다. 가족들과 친구나 후배들과 어울려 기념사진을 찍은 잔상만 희미할 뿐이다.

올해 대학 졸업식 화두는 ‘위로’라고 한다. 서울의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가수 전인권은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가 울려 퍼지기도 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환아와 같은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수년째 계속된 경제 불황 때문에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졸업식에 활기분하게 참석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영화배우 로버트 드 니로 역시 2015년 뉴욕대학 예술대 졸업식에서 “졸업을 하는 당신들 앞에는 이제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이라 불리는 현실 세계가 열려 있다”면서 “여러분은 옛 됐습니다(you’re fucked)”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졸업사를 들은 학생들은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환아와 같은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수년째 계속된 경제 불황 때문에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졸업식에 활기분하게 참석하는 학생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영화배우 로버트 드 니로 역시 2015년 뉴욕대학 예술대 졸업식에서 “졸업을 하는 당신들 앞에는 이제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이라 불리는 현실 세계가 열려 있다”면서 “여러분은 옛 됐습니다(you’re fucked)”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졸업사를 들은 학생들은 깨닫는 바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졸업식 축사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 2669만8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2568만 9000명(실업률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8%, 청년층 실업률은 8.6%이다.

해 졸업을 유예하는 풍속도 이미 오래됐다. 미취업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더욱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고시원 등지에서 매진하거나, 반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흔들리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때론 사회가 매정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청춘의 힘은 위대하다. ‘고용한파’ 속에서도 새싹을 틔우려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어르신 친화 도서관’으로 변화가 필요한 때



진 재 호
광주북구 도서관장

일곱도서관에 오시는 91세 할머니가 계신다. 말을 건네보니 소릿적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서관을 찾으셨단다. 일주에 두세 번 어린이 자료실을 찾아 동화책을 읽고 그 감상을 시로 짓고 그림으로 그리신다니 뭉가 충격이었다. 할머니에게 도서관은 책과 만나고,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도서관 어린이실에 가면 유모차를 끌고, 손자·손녀 손잡고 동화책을 읽으러 오시는 어르신이 하루에도 십여분이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역시 잡지나 신문을 보고 책을 읽는 어르신들로 항상 가득하다. 학습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

간까지 개인학습에 열중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도서관 시설 개선을 권하하시는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그만큼 도서관은 이제 어르신들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청소년 인구 감소로 요즘 학교와 도서관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도서관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16개 강좌와 성인 동아리 27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도전 한글교실이나 명심보감, 일곡시회, 실버독서회는 어르신들로 강의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다. 특히 실버독서회 어르신들은 어린이에게 영어책 읽어주기, 구연동화로 자원 봉사를 하고 계신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특별극까지 선보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은퇴한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하는 순환적 학습으로 세대 교류는 물론, 자신의 노년을 가치있게 보람있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선진자인 일본에서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노인 대상 ‘치매예방과 치료’ 관련 내용으로 활발한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고령화가 대응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고 도서관 운

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로 앞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도서관 계획 수립 및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어르신 친화형 도서관’으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지역 내의 노인시설, 양로원 등의 단체 혹은 시설과 연계하여 도서 대출을 확대하고, 찾아가 책 읽어주거나 북 토크 등 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며칠 후면 앞서 언급한 91세 어르신의 소박한 그림 전시가 일곡도서관에 열린다.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것으로 여생을 마무리 하고 싶었다는 그 분, 도서관에 다니시며 그리신 그림을 손때 묻은 스케치북 그대로 30여권을 전시할 예정이다. 도서관 근무자와 이용자를 마음에 뒀기 잔잔한 울림이 되는 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도서관이 새롭게 가져야 할 가치는 사회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지난 인생을 정리하고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